

## 기도

1. 언약을 붙들고 소망을 가진 자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2.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나눔

1. 당신에게 있는 유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2.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 신앙

### 바이블로 빌립보서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다. 어려움 가운데 있던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쓸 것을 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와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면서 일치해 할 것을 가르쳐준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있음을 가르쳐준다.

# 구역 공과

2022년 1월 16일

## 소망을 가지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사야 2장 2-4절)



## 소망을 가지라

창세기 38장 24-30절 (22장, 488장)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을 잇은 유다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소망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명예와 목숨을 걸었던 다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유다의 잘못이 무엇인지, 다말이 왜 인정을 받았는지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유다가 다말이 옳았음을 인정한 말씀입니다(24-26절).**

유다의 첫째 아들인 엘과 다말이 혼인 후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혼 제도(신25:5-10)를 따라 다말은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과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난은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유다의 셋째 아들 셀라와 혼인을 해야 했지만, 유다는 다른 두 아들처럼 막내 아들을 잃을까 두려워하여 다말을 친정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엘마 후에 다말은 유다가 셀라를 자신에게 주지 않으려 함을 알고 권리를 찾기 위해 창녀의 모습을 합니다. 유다는 다말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도장과 끈, 지팡이를 담보물로 주고 동침할 때 다말이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석 달쯤 후에 유다는 다말이 행음함으로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끌어내어 불살라 죽이려 합니다. 그때 다말이 유다의 도장과 끈, 지팡이를 보여주었고,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말이 옳다고 말하며 인정해 주었습니다.

유다의 잘못은 첫째, 죄를 용납한 것입니다. 유다의 두 아들 엘과 오난은 죽기까지 많은 죄를 지었고, 죄의 분량이 가득 차서 죽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두 아들의 범죄를 많이 듣고 보았지만, 책망하거나 회개시키지 않았습니다. 죄는 누룩과 같이 점점 퍼지고 심령을 더럽게 하고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드러내야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둘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유다는 과부가 된 며느리를 죽을 때까지 책임 질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아들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다말에게 돌리며 내쫓았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언약을 잇은 것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지만,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가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다는 야곱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인 수혼 제도를 지키지 않고 대를 끊어 버리려 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양털을 깎으러 가서 창녀에게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잇고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른 죄였습니다.

다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옳다고 인정 받았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으로 다말의 행동은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말은 유다 집안에 시집을 와서 하나님의 언약

과 유다가 장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기 위해 당시 법을 따라 모든 일을 하였고 옳다 인정받으며 그리스도의 계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27-30절).**

다말이 임신하여 쌍둥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 것을 보고 산파가 홍색 실을 손에 매었더니 손이 다시 들어가고 둘째 아이가 먼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세라’라는 이름을 붙이고, 둘째는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는 뜻의 ‘베레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이 베레스를 통해 유다의 대를 잇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음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태가 유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도 죄를 용납할 때가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남에게는 엄격한 기준으로 죄를 책망하면서 가까운 사람에게는 죄의 기준을 느슨하게 하여 용납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를 용납하면 죽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죄를 용납하지 말고 죄를 찾아 제거하고, 온전한 새 덩어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가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오늘날 자신의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남의 죄만 찾아서 정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깨닫고 바로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할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의무를 바르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언약의 말씀을 잇고 살고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영이 살고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죄를 많이 범했지만, 다말이 유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 역사에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땐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곧 소망이 됩니다. 말씀을 붙들 때 회복시켜주시고 심령이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 맺 음 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죄를 용납하지 마시고, 언약을 기억하며 받은 바 의무와 책임을 바르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다말이 언약의 말씀을 붙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능력과 생명이 되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